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신성근 신부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만나이다.'<sup>1)</sup>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창세기' 첫 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느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1장 참조).

하느님은 무(無)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존재한다.

### I.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1.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창세기 첫째 장과 둘째 장은 세상과 사람 창조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는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시적(詩的)으로 아름답게 가르치면서 존경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창세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 이야기는 많은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과 사람의 특별한 창조, 인간의 타락 등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 2. 창세기의 계시

##### 1)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있게 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본질과 성격에 따라 각각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느님이시다.

##### 2) 창조된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성경에서는 세상 만물을 모두 선하게 보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루하루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창세 1장 참조)라고 말씀하시며 감탄하신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만드신 것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3) 사람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세기는 사람 역시 하느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숨을 불어넣어 만드셨다고 전하고 있다(창세 1,26-27 : 2,7 참조) 그러기에 사람은 창조주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관리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창세 1,26 참조).

### 4) 세상 만물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세상 만물은 본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선은 악이 되고, 축복은 저주가 된다.

### 5)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세계는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 창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결국 창조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창조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 3. 창조의 존엄성

하느님께서 참된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계속 창조를 이어가신다. 즉 하느님은 세상 사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지속해서 발전하도록 섭리하신다. 모든 것은 하느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코엘 3,14).

또한 하느님의 창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 영적 존재들은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은 하느님 섭리의 도구들이다. 하느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힘 있게, 그러나 숨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 II.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 1. 하느님을 닮은 사람

하느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절정이요 영광으로써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순수 영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선 자체이시다. 즉 진, 선, 미 자체이시

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이런 면들을 붙여 넣어 주셨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감성적인 능력, 자기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 선과 악을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양심, 그 행동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존재로 만드셨다(창세 2,7 참조). 이로써 사람은 육체적인 활동과 노동을 통하여, 자기완성과 세상의 완성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 영혼은 육신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물론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죽지 않는다. 죽음으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2.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

### 1) 사회적 본성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 있게 하시지 않고 함께 살도록 섭리하셨다(창세 1,26 : 2,18.21.22 참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사회성을 지닌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거대한 생활 집단만을 뜻하지 않는다. 작게는 부모 형제가 모여 있는 가정이 사회일 수 있고,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곧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은 각자가 속한 사회 안에서 서로의 인격을 향상하고 사회를 발전시켜갈 의무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과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친교와 협력 속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2) 세상과의 조화

첫째,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조화 이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다해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흠에서 온 육신과 하느님의 숨인 영혼이 조화를 이룬 인격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웃과도 조화를 이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셋째,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창세 1,28 참조) 말씀하셨다. 이는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다스리

며 보존하라는 말씀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롭게 사용하고 귀하게 여겨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 3) 창조사업의 협력자인 사람

하느님께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으며, 그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느님의 창조사업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람을 당신 창조사업의 협력자로 삼으시어,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계속 창조해 가도록 섭리하셨다. 온갖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새로운 발견과 발명은 오직 하느님의 영(靈)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하느님 창조사업의 동반자요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 교회는 답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겉모습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만드셨다.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겉모습에서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그분을 닮았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 그분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이웃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며 올바른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하느님은 사람에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까지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받은 사람은 모든 세상 사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고 다스려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 계획에서 남녀는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땅을 "지배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배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지혜 11,24)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 III. 하느님의 명을 어긴 사람

창세기는 하느님 창조사업의 절정인 사람의 배반을 통해서 죄의 의미를 말한다. 사람의 범죄는 하느님과의 단절로 나타난다. 즉 피조물의 비극은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시작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신분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과 모든 후손에게 커다란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이 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다.

## 1. 첫 사람의 죄

첫 사람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죄는 첫 사람 이담의 후손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를 원죄(原罪)라 한다. 이처럼 원죄는 첫 사람에 의한 죄로써, 첫 사람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안에 남아 있는 죄이다. 그리고 원죄는 개인의 죄뿐 아니라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닌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경향을 말한다.

죄란 일차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이며, 이차적으로는 죄의 상태 즉 죄 있는 행위의 악성이 일정하게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 죄 있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느님을 고의로 외면한다. 결과적으로 하느님과 단절을 가져온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하며, 하느님의 뜻마저도 인간의 뜻에 종속시키려 한다. 이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로 성화는총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하느님께 대한 불복종으로 인한 죄는 인간의 사회성과 연대성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 2. 사람의 사회성과 죄의 연대성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조차도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교만하여 하느님의 명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파괴를 가져왔다. 하느님과의 부조화는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에 부조화를 가져온다. 이때 사람은 죄책감을 느낀다(창세기 3,8 참조).

첫 사람 아담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선한 존재였기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앞을 가리고 하느님 앞에서 숨어야만 했다.

## 3.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사람을 해방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하느님께서 여인을 유혹한 뱀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겠으나, 결국은 그 사람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구원을 약속하신다. 하느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다. 교회는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첫 번째 예언으로 본다.

### **교회는 답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만물은 모두가 선하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 곁을 떠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을 가져오고, 자연과도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희망을 갖게 하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원죄와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죄의 결과들은, 요한 사도가 “세상의 죄”(요한 1,29)라고 표현하였듯이 세상 전체를 죄스런 처지에 빠지게 한다. 이 표현은 또한 인간들의 죄로 생겨난 공동체적 상황과 사회 구조들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의미한다(408항).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부르시어 악을 이기고, 타락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것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창세 3,15 참조). 창세기의 이 구절은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첫 예고, 곧 뱀과 여인 사이의 싸움과 이 싸움에서 마침내 이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처음 아리는 것이어서 '원복음(原福音)'이라고 부른다(410항).